

### 이기는 삶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 욕심을 버리라고 하니 욕심을 버리고 어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비유면 체 위진다는 단순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릇에 무엇이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릇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 비워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은 곧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다. 고정관념과 집착에 매여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면 자유한 안개가 걷히듯 앞길이 보인다. 그러므로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반면 성공하는 삶을 위하여 끝까지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다. 자신의 꿈을 버려서는 결코 성공에 이를 수 없다. 다 꺼진 불씨가 살아나 산을 불태우는 법이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다시 그 불씨를 지켜야 한다. 야구는 9회 말부터는 말처럼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멋진 인생 역전에 도전해 보자.

성공에 이르려면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마다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미운 마음, 못마땅한 마음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옛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든 말이 있듯이 미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 보면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사그라들어 건강이 보너스로 찾아온다.

미운 감정이 있다보면 상대를 말로 상처를 입히기 쉽다. 미움이 앞서다 보면 거친 말이 나가게 되고 상대방은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다.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가는 법이다. 그래서 옛말에 입은 화(禍)가 드나드는 문이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성공에 이르려면 끝까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끝까지 포기(拋棄)하지 마라.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져라.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나를 믿고 도와준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만이나 만용과는 다르다.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와 강한 용기이다.

죽는 소리는 하지 마라.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악한 소리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동정을 얻으려는 것은 나약하기 이르게 없는 행동이다. 결국 자신이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인생의 난관 대부분은 가다 보면 극복된다. 그러므로 어두운 생각은 하지 마라. 스스로 감감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말고 햇빛 찬란한 밖으로 나오라.

마음의 문을 닫지 마라.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라. 상처받지 않으려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대문을 열면 도둑이 들어오지만 마음을 열면 기회와 행운이 들어온다.

끝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마라. 할 일이 없으면 주변 청소라도 해라. 나의 주변환경과, 몸과 마음이 깨끗하면 아픔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리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더 생겨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막 생겨난다. 끝으로 잠자리라까지 고민을 가지고 가지 마라. 잠자기 전에는 좋은 기억만 떠올려라. 잠을 자는 동안 행운으로 바뀐다.\*

###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 “아리령은 정도령이 나오시는 고개”

우리 민요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하였다. 그것은 정도령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은 발병이 나서 죽는다는 뜻이다. 예언서에는 아리령(亞裡嶺)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亞)자는 백십자의 구세주 정도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정도령이 나오시는 고개는 지극히 어렵고 어려운 길이다. 그 어려운 고개를 넘고 넘어서 오늘날 정도령이 나와서 감로 이슬을 내려 주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 서서 하는 아사나의 기본 ‘산자세’~

효능: 서 있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좋은 자세. 배를 뒤로 끌어당기고 명치를 약간 끌어올리고 가슴은 앞으로 내밀고 턱은 약간 들고 척추와 목을 똑바로 편다. 양 발바닥 전체에 고르게 체중을 싣고, 시선은 정면

을 향한다. 호흡은 편안하게 한다. 산처럼 견고하게 서 있는 자신을 관찰한다.

동작①: 두 발을 모으고 똑바로 선다. 팔은 자연스럽게 옆으로 내린다. 무릎 근육을 위로 끌어올리고 복부를 허리 뒤로 붙인다. 60초 유지. 3회.

균형각각을 Up 시키는 나무자세~  
효능: 한발로 설 때 잠재능력을 개발시키는 건뇌라는 것이 균형 유지능력을 높인다고 한다. 목의 근육과 귀속을 발달시키므로 자세가 바르게 된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의 발달이 필요한데 이 자세들이 두 가지를 발달시켜 활동적인 발을 만든다.

동작②: 바른 자세로 똑바로 서서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다리 허벅지에 댄다. 60초 유지. 좌우 3세트.

동작③: 숨을 마시면서 팔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고 내쉬면서 얼굴 앞에서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합장한다. 시선은 눈 높이에 맞춘다.  
Tip: 균형 잡는 동작을 할 때는 언제나 시선은 눈높이 한점에 맞추고 시작해야 하고, 양쪽 다리에 각각 1분 이상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 자신의 능력 따라 견디는 시간을 조절한다.\*

## 궁궁을 알면 극락이요, 을을(乙乙)을 알면 무문도통(無文道通)이라

### 세론시(世論視)

人字勝人勝人神人 인자승인승인신인  
別天是亦武陵之處 별천지역무릉지처  
世顯十勝聖山聖地 세원십승성산성지  
嗟我後生 차아후생  
勿離此間弓弓之間 물리차간궁궁지간  
天香得數 천향득수  
三神山下山鳴地 삼신산하우명지  
牛聲浪藉始出天明 우성낭자시출천민  
人皆成就 인개성취

그 분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기신 분이요 삼위일체하나님의 신이 좌정하신 분이요. 그 분이 계신 곳은 별천지요 무릉도원이다.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던 십승이 계신 성산성지 십승지이니라.

아, 나(하나님)의 후생들이여! 이 궁궁의 사이를 떠나지 마라. 감로 이슬은혜와 백합꽃 향기 같은 하늘향기를 얻는 운수는 삼심산(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신 십승인 정도령) 아래 소가 우는 곳에 있으니라. 소 울음소리(정도령의 진리 말씀)가 낭자하니 비로소 처음으로 하늘 백성이 나오도다. 사람마다 모두 소원성취하리라.

弓矢口入於極樂 궁궁시구입어극락  
乙乙矢口無文道通 을을시구무문도통  
仁人得地近默不參 인덕지근수불참  
其庫何處 기고하처  
紫霞南之朝鮮 자하남지조선  
秘藏之文 비장지문  
出於鄭氏自出於南 출어정씨자출어남  
秘文曰海島真人 비문일해도진인  
自出紫霞島 자출자하도  
眞主赤黃之馬 진주적황지마  
龍蛇之人 용사지인

궁궁을 알면 극락에 들어가고 을을(乙乙)을 알면 무문도통(無文道通)하리라. 아진 사람이야! 그곳(궁궁지=십승지)을 찾을 수 있을 것이요 짐승 같은 사람은 참례치 못하리라. 인(仁)이란 크기복례를 말하니 나를 이겨서 예(禮)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나라는 것을 이겨 없애버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어짐(仁仁)이 아니다. 내가 도통하겠나. 내가 영생 구원 원했다. 내가 무슨 사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것이 바로 도를 뉘는다는 사람들의 병통이요 착각이다. 그야말로 허공에 말쑥 박는 행위이다. 영생구원(도통)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마귀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영생병 환자 구원병 환자라고 한다.

그 보배로운 곳은 어디인가? 신선의 자쫓빛 노을이 어린 한반도 남쪽 한국이다. 정도령은 완성의 영모이기 때문에 그 엄마를 찾아 부르는 곳에서 영적 엄마인 정도령의 감로 이슬은혜를 받으면서 진리 말씀을 듣고 깨치게 되어 하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비결서에는 20세기 후반에 정도령이 스스로 한반도 남쪽 한국에 나온다고 한다. 비문(秘文)에 이르기를 해도(海島=해우반도海隅半島의 줄임말=한반도)진인이 스스로 자하도에 출현하시니 진주(진짜 구세주)요 적황색의 말을 타고 오시는 진사성인이라고 하였다. 적(赤)은 남방이요, 황(黃)은 오십 토(五十土), 마(馬)는 천마(天馬)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한반도 남쪽 한국에 심오 진주로 오신 분이 진사성인이시라는 말이다.

柿木扶人 서목부인  
皆之柿木之林 개지서목지림  
何得高立 하득고립  
多人往來之邊 다인왕래지변  
一水二水驚迴地 일수이수영회지  
鷄籠創業始此地 계룡창업시차지  
愚人不尋 우인불심  
不入此地之人 불입차지지인  
怨無心 嗚呼 後人 원무심 오호 후인  
勿持世事蜉蝣乾坤 물지세사부유건곤  
勿離此間祈天禱神 물리차간기천도신

감(감)나무가 사람들을 도와 붙잡으니 모두 다 감(감)나무 숲을 이루도다. 숲을 이룬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어디서 크고 굳세게 우뚝 자랄 수 있나?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에 있으며 삼위일체하나님의 생명이 감도는 곳이다.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계룡창업의 시발점이니 어리석은 사람은 찾지 못하리라. 이곳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죽으리라. 원무심(怨無心)은 죽을 사(死)자의 파자이다. 오호라! 후손들이여 세상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세상사는 천지간에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다. 궁궁의 사이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活方何處 활방하처  
非東非西不離南鮮 비동비서불리남선

南北相望可憐寒心 남북상망가련한심  
地即十處吉地 지즉십처길지  
誰福福地未卜定穴 수복지미복정형  
各處不利勿思十勝 각처불리물사십승  
只尋木人新幕 자심목인신막  
肉眼不開不覺此句 육안불개불각차구  
若不解釋不解時勢 약불해득불변시세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동양도 서양도 아닌 남조선(대한민국)이니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라. 남북 분단으로 서로 원수같이 바라보니 가련하고 한심하구나. 지리(地理)를 말한 즉 십처길지(十處吉地)가 복된 곳이라고 누가 말했나? 여태껏 하늘에서 정한 바 없으니 열군데 땅 각처가 다 이롭지 못하리라. 지리 십승을 생각하지 말고 단지 동방의 의인이 계신(정도령) 하나님의 신의 장막을 찾아가라. 신막(新幕)은 신막(神幕)으로 하나님의 신의 장막이다.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 글을 깨닫지 못하리니 만약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시세를 분별할 수 없으리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phark23@naver.com  
010 3912 5953

## 생명샘 | 서로 닮는 이유

이 세상에 형제가 아니더라도 닮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기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근 한 과학자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마니투데이 8월 25일자에 실린 기사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마넬 에스텔러(Manel Esteller) 스페인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연구소 박사 연구팀은 얼굴이 매우 흡사한 ‘도플갱어’들은 유사한 유전자형(genotype)을 공유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에스텔러 박사 연구팀은 1999년부터 도플갱어 사친을 모이온 사진작가 프랑수아 브뤼넬로부터 자료를 받아 닮은꼴 얼굴 32쌍 중 유사도가 더 높은 16쌍을 추려낸 후 DNA 비교 테스트와 생활 습관과 관련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닮은 DNA 비교 테스트와 생활 습관과 관련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닮은 16쌍이 다른 16쌍에 비해 훨씬 많은 특정 유전자형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에스텔러 박사는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많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상식처럼 보이지만 결코 증명된 사실은 상식처럼 보이지만 결코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 이번 연구는 인간의 얼굴 형성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자적 특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를 영생학적 관점으로 확장해서 해석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영생학

에서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대상을 닮는다고 말한다. 부처님을 바라보면 부처님을 닮게 되고, 마구니를 바라보면 마구니를 닮게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이 맞는 말씀인 것은 오랫동안 같이 산 부부들이 서로 많이 닮은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들은 마음도 많이 닮은 뿐만 아니라 모습도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서로 바라보는 대상의 영이 들어와 자신의 피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마음먹는 대로 피가 변하고 몸이 변한다는 것은 진리이다. 이를 과학적으로 말하면 유전자가 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유전학에서는 후성유전학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후성유전학이란 DNA, RNA 또는 단백질 간의 공유 결합 변형을 통해, 일차 서열을 변경하지 않고 분자의 기능이나 조절을 변화시키는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두산백과) 쉽게 말하자면 유전자가 환경에 의해서도 변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도플갱어의 경우도 후성유전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인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면 남편을 닮은 자식이나 오고 남편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을 닮은 아이가 나온다. 친구 따라 강남간다는 말도 설명 가능하다고 하겠다. 유전자를 좋게 변화시키려면 어떤 사랑과 시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 분께 감사드립니다

###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김해제단 : (055)327-2072	사천제단 : (055)855-4270	충주제단 : (010)9980-5805	大阪祭壇 : (06)6451-3914
수원제단 : (031)236-8465	대구제단 : (010)6530-7909	순천제단 : (010)3661-9025	양평제단 : (010)2945-8254	Sydney : (006)0415-727-001
안성제단 : (031)673-4635	마산제단 : (055)241-1161	정읍제단 : (010)8628-2758	橫濱祭壇 : (045)489-9343	
평택제단 : (010)7516-1591	진주제단 : (055)745-9228	군산제단 : (063)461-3491	神戸祭壇 : (078)862-9522	
부산제단 : (051)863-6307	진해제단 : (055)544-7464	대전제단 : (042)522-1560	下關祭壇 : (0832)32-1988	
영도제단 : (010)6692-7582	영천제단 : (054)333-7121	청주제단 : (010)5484-0447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디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